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성과의 상관성 분석

오상영^{1*}, 홍현기¹, 전제란²

¹청주대학교 경영학부, ²(의)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경영관리원장

The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Management Performance and Governmental Support Policy for SMB

Sang-Young Oh^{1*}, Hyun-Gi Hong¹ and Je-Ran Chun²

¹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eongju University,

²JeongSan Medical Foundation HyoSung Hospital

요 약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인력·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이 중 3개 변수가 자금 지원정책으로 자금 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management performance as the result of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SMB). The governmental support policy was carried out for the companies classified in 3 criterion. The first is the upbringing of dynamic SMB group, which are driven by creativity and innovation. The second is the enforcement of technology-innovation and cooperation for SMB. The last is the establishment of the growth basis for SMB like funds, human resources and distribution channels. After categorization of above 3 classes, the affect of support policy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is analyzed, in terms of 3 aspects, management performance, technical performance and policy satisfac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governmental support policy has the remarkable effects on the financial support sector of SMB. The 5 major sectors, 1) the upbringing of venture-innobiz innovation company, 2) rearing funds of knowledge-based service company, 3) R&D support, 4) support of management stability fund, 5) expansion of distribution channel to the public sector, are designed from 24 variables. The 3 sectors of these 5 are have the main influences from governmental support policy.

Key Words : SMB, Governmental funds support policy, Management performance,

1. 서론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자들은 지원정책과 중소기업의 수요 요인에 의해 정책의 성과가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A. Chuck[1]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성과는 조직의 전략적 관리 활동인 경영목표, 경영

의 다각화, 전략적 제휴 등 요인의 시행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요 기업의 측면에서 Haton & Raymond[2]는 기업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기업 내부 분위기 등 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전략적 관리활동 외에도 지원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책 시행의 효율성도 매우 중요한 요

*교신저자 : 오상영(culture@cju.ac.kr)

접수일 09년 04월 21일

수정일 09년 06월 23일

게재확정일 09년 07월 22일

인이라고 주장한다[3]. 그리고 정부지원정책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면서 오히려 규제 정책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요인이 지원 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였다[4]. 따라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와 국내 경기 변동 과정을 보면 정부정책의 장기적 방향성,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정책, 대기업과의 차별성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5].

이와 같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에 불만족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제도, 단체주의계약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의무대출제도, 신용보증기금의 운영방식, 중소기업관련 자금운영방식 등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약자로서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한기운[7]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직접수요자인 중소기업자의 접근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방향의 재정립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상영[8] 정부의 지원 자금을 대한 성과는 절대적으로 기업의 몫이라고 주장하였다. 어떻게 정부지원 자금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기업을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 키는 수혜 기업이 갖고 있으며, 정부지원자금의 수혜에 몰두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정부지원 자금이 아무리 많이 투입된다고 해도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지원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지원자금의 지원 시점부터 소요되는 시점까지 철저한 목표 설정, 자원배분 등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의 대부분은 기술개발 지원효과, 정책자금 활용효과 등 정책 자금의 비중이 높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송혁준 외[9]의 연구결과에서는 정책자금의 활용이 중소기업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현욱[10]은 연구 결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효과에 대해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지원기관의 지원시스템 수준, 정책적 지원 시점, 수혜 기업의 전략 및 능력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효과에 대한 일치된 결과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사회적 측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때

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설계

2.1 연구 방향 및 방법

실용정부 원년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는 경쟁중시, 글로벌 스탠더드, 수요자 맞춤형 정책서비스, 창의와 혁신 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인력·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저변확충 등으로 정하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11].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는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인력·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중소기업의 정책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평가기준이 주장되었지만 공통적인 것은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 적절성, 효용성, 지속성 등으로 정리된다[12]. 본 연구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3가지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세부 정책 내용을 측정변수로 설정하고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성과를 토대로 정책의 효용성을 측정하였다. 3가지 분야에 대해 각각 세부 측정 변수를 선정하고, 이들 선정 변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만족도 측정의 타당성 검증은 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각 측정 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2.2 측정 변수

측정변수로 활용된 세부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부문으로 6개의 측정 변수를 선정하였다. 측정변수의 내용은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창업절차간소화 및 창업교육확대, 중소기업사업전환추진, 중소기업회생인프라 조성, 벤처투자시스템 선진화,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등이다. 둘째,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부문으로 6개의 측정 변수를 선정하였다. 측정 변수의 내용은 기술 연구개발 지원,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등이다. 셋째, 자금·인력·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부문으로 12개 측정 변수를 선정하였다. 측정 변수의 내용은 경영안정자금, 맞춤형 기술기능인력 양성지원, 현장인력 안정 공급 지원,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민간부문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수출저변확충 지원,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소상공 창업 지원, 소상공 경영개선자금 지원,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지원, 여성기업 활동촉진 지원, 장애인 창업촉진 지원 등이다.

3. 연구 결과

3.1 자료수집 및 설문 항목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을 중심으로 120개 기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설문을 실시하여 유효 설문 79개를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표 1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독립변수로 활용할 문항은 매우불만(1점)에서 매우만족(5점) 방식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하였다. 표 내용 외에 종속변수로 활용할 문항은 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 등 3개의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창업연도, 업종, 창업원 수 문항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

설문문항	
창의적 육성 정책 (A변수)	A1.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A2. 창업절차간소화 및 창업교육 확대
	A3. 중소기업사업전환추진
	A4. 중소기업회생인프라조성
	A5. 벤처투자시스템 선진화
	A6.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지원
기술활동 강화 정책 (B변수)	B1. 기술 연구개발 지원
	B2.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B3.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원
	B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B5.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B6.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성장기반 구축 정책 (C변수)	C1. 경영안정자금 지원
	C2. 맞춤형 기술기능인력 양성지원
	C3. 현장인력 안정공급 지원
	C4.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C5. 민간부문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C6. 수출저변확충 지원
	C7.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C8. 소상공 창업 지원
	C9. 소상공 경영개선자금 지원
	C10.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지원
	C11. 여성기업 활동촉진 지원
	C12. 장애인 창업촉진 지원

3.2 기초 분석 결과

설문 응답의 기초 분석 결과, 창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기업이 15.2%(12개),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기업이 53.2%(42개),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기업이 31.6%(25)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의 분포(설문은 서비스업, 제조업 중심으로 조사 함)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서비스업종이 15.2%(12개), 대부분 외주 생산을 하는 제조업종으로 41.8%(33개), 외주와 자체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종이 43.0%(34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 기업의 22.8%(18개)은 10명이상 30명 미만의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30명~50명 기업은 57.0%(45개)로 가장 많았고, 50명이상 100명미만의 기업이 20.3%(16개)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 활용될 사업성과의 만족도는 평균이 5점 척도에서 3.79점(Sd.=0.88)으로 나타나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성과 만족도의 평균은 4.13점(Sd.=0.82)으로 나타나 매우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만족도에서는 평균이 3.91점(Sd.=0.85)으로 나타나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만족도 측정의 타당성 검증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하여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이고, 요인적재량이 0.4이상 추출되도록 하였으며 직각회전(Varimax)방식을 이용하였다.

[표 2] 창의적육성정책만족도 요인분석 결과

구분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A5	0.861	0.741	3.583
A1	0.815	0.664	
A6	0.806	0.650	
A2	0.770	0.593	
A3	0.751	0.564	
A4	0.609	0.471	

[표 3] 기술활동강화정책만족도 요인분석 결과

구분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B4	0.855	0.731	3.261
B2	0.840	0.706	
B5	0.814	0.662	
B3	0.774	0.599	
B6	0.569	0.454	
B1	0.489	0.439	

[표 4] 성장기반구축정책만족도 요인분석 결과

구분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1	2	3		
C5	0.832	0.163	-0.133	0.736	1=3.060 2=3.034 3=1.733
C4	0.823	0.097	0.115	0.701	
C2	0.823	0.155	0.114	0.715	
C3	0.643	-0.025	0.462	0.627	
C1	0.484	0.296	0.115	0.435	
C12	0.088	0.822	0.105	0.694	
C6	0.000	0.817	-0.050	0.670	
C11	0.121	0.785	0.219	0.678	
C10	0.460	0.721	-0.111	0.744	
C7	0.340	0.559	0.150	0.450	
C8	0.059	-0.039	0.873	0.766	
C9	0.113	0.305	0.778	0.711	

요인 추출 후의 각 요인의 고유 값 및 추출한 요인들의 각 변수의 설명정도(공통성)는 모두 0.4 이상으로 측정변수로서 타당한 결과를 보였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값이 A변수=.8621, B변수=.8193, C변수=.8386으로 나타나 설문 항목의 구조적 타당성도 유효함을 보였다.

3.4 정책과 성과간의 상관분석 결과

이러한 설문 항목의 타당성을 기초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표 5의 결과를 얻었다. 표 5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정책이 기업의 성과와 약간 또는 강한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관성의 유효성도 p-value<.05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절대적 결과 값의 측면에서 상관도 0.3이하의 약한 상관도를 보이는 변수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성향에 따라 절대적 상관도 수치의 편차도 있으므로 변수 간의 상대적 상관도를 분석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이러한 분석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통계적 유의성이다. 분석된 상관계수에 p값이 매우 유효하므로 약한 상관계수도 의미있는 변수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된 결과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상관도를 보이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A변수 그룹에서는 A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육성), A6(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지원) 변수가 특히 상관도가 높았다. 또한 B변수 그룹에서는 B1(기술 연구개발 지원), B4(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B5(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의 변수가 특히 상관도가 높았다. C변수 그룹에서는 C1(경영안정자금지원) 변수만 상대적으로 상관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5 정책과 성과간의 회귀분석 결과

A그룹 측정 변수와 성과(P1,P2,P3)의 회귀 분석 결과

에서 P1(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A1($\beta=0.302, t=2.336$), A6($\beta=0.328, t=2.747$) 변수만이 .05이하의 유의확률을 보였다. P2(기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A6($\beta=0.342, t=2.581$) 변수만이 .05이하의 유의확률을 보였다. 또한 P3(정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A6($\beta=0.277, t=2.198$) 변수만이 .05이하의 유의확률을 보였다. 따라서 A변수 그룹에서 기업의 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측정변수는 A6(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B그룹 측정 변수와 성과(P1,P2,P3)의 회귀 분석 결과에서 P1(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B1($\beta=0.474, t=4.879$) 변수만이 .05이하의 유의확률을 보였다. P2(기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B1($\beta=0.314, t=3.020$) 변수만이 .05이하의 유의확률을 보였다. 또한 P3(정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B1($\beta=0.424, t=4.579$) 변수만이 .05이하의 유의확률을 보였다. 따라서 B변수 그룹에서 기업의 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측정변수는 B1(기술 연구개발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상관분석 결과

	Var_Corr			Fac_Corr		
	P1	P2	P3	P1	P2	P3
A1	0.599**	0.519**	0.516**	.642**	.581**	.635**
A2	0.357**	0.436**	0.420**			
A3	0.420**	0.371**	0.497**			
A4	0.531**	0.364**	0.488**			
A5	0.485**	0.455**	0.450**			
A6	0.606**	0.548**	0.573**			
B1	0.607**	0.481**	0.577**	.640**	.556**	.685**
B2	0.434**	0.343**	0.501**			
B3	0.397**	0.353**	0.513**			
B4	0.514**	0.472**	0.533**			
B5	0.530**	0.433**	0.538**			
B6	0.349**	0.364**	0.346**			
C1	0.430**	0.511**	0.466**	.527**	.587**	.596**
C2	0.348**	0.350**	0.246**			
C3	0.362**	0.352**	0.233**			
C4	0.532**	0.478**	0.379**			
C5	0.393**	0.377**	0.316**			
C6	0.274**	0.244**	0.419**			
C7	0.359**	0.419**	0.376**			
C8	0.216	0.245**	0.210			
C9	0.265**	0.233**	0.321**			
C10	0.347**	0.353**	0.451**			
C11	0.104	0.395**	0.464**			
C12	0.179	0.294**	0.392**			

(주1) * p<.01, ** p<.05, Var corr: 측정변수의 상관계수, Fac corr: 요인의 상관계수

(주2) P1=사업성과, P2=기술성과, P3=정책만족

(주3) 음영부분: 상대적으로 상관도가 높은 변수

C그룹 측정 변수와 성과(P1,P2,P3)의 회귀 분석 결과에서 P1(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C1($\beta=0.321, t=2.888$), C4($\beta=0.331, t=2.309$) 변수만이 .05이하의 유의확률을 보였다. P2(기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C1($\beta=0.320, t=2.902$), C4($\beta=0.328, t=2.308$) 변수만이 .05이하의 유의확률을 보였다. 또한 P3(정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C1($\beta=0.291, t=2.609$), C4($\beta=0.290, t=2.018$) 변수만이 .05이하의 유의확률을 보였다. 따라서 C변수 그룹에서 기업의 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측정변수는 C1(경영안정자금지원)과 C4(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지원)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측정 변수로 나타났다.

4. 결론

상관분석 결과와 회귀분석 결과의 공통성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가 다음과 같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다. 이 중 3개 변수가 자금 지원정책으로 자금 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 Chuck, P., "Competitive strategy through differentiation," The Small Business Journal, 2000.
- [2] Haton, L., Raymond, B., "Developing small business effectiveness in the context of congruence," J. of Small Business Mgt., 32(3), pp.76-89., 1994.
- [3] Hassink, R., "Towards regionally embedded innovation support systems in South Korea? Seoul," The 16th Pacific Regional Science Conference, pp.1-29. 1999.
- [4] 정대용,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평가에 따른 벤처기업 진흥모델의 등장," 송실대학교 논문집, 제1권, 제3호, 2000.
- [5] 조영삼, "중소기업의 발전 조건과 정책 :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과제,"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중소기업학회 발표논문집, pp.151-173, 2006.

- [6] 김종일,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중소기업," 중소기업연구원 뉴브리지 연구, 06-01, 2006.
- [7] 한기운, "중소기업시책 및 법제의 변천과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료집, 05-01, 2005.
- [8] 오상영,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논문집, 제7권 제1호, pp.173-212, 2006.
- [9] 송혁준·김이배·오용락,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제28권, 제4호, pp.65-80, 2006.
- [10] 김현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05.
- [11] 중소기업청, 2008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8.
- [12] 박재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측정기법 개발," 한국행정연구원, 1999.

오 상 영(Sang-young Oh)

[종신회원]



- 2001년 2월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혁신이론, KMS, EC, 정책이론, BSC

홍 현 기(Hyun-Gi Hong)

[종신회원]



- 1989년 2월 : 독일 괴테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정보학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ERP시스템, 정보자원관리, LBS

전 제 란(Chun Je Ran)

[정회원]



- 2008년 8월 : 청주대학교 경영학
과경영학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의) 정산
의료재단 효성병원 경영관리원
장

<관심분야>

병원경영, 보건행정, 병원CRM, 의료관광, 호텔정보시스템